



特許廳 政策諮問委員會 개최

特許情報 서비스 方案 강구 건의

特許廳이 知的所有權 주무부서로서 본격적으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청사확보 및 기구의 확대개편등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10일 서울江南구소재 라마다르네상스호텔에서 개최된 特許廳政策諮問委員會(위원장 金生基本會會長)에 참석한 자문위원들은 이같이 밝히고 이를 위해 特許廳 및 관계기관이 상호협조, 늘어나는 工所權出願 및 선진국의 知的所有權보호에 대처해 나가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문위원들은 또한 特許廳情報서비스의 미흡함을 지적하고 산업연구원등 관련기관과 협조하여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特許情報를 신속하게 입수할 수 있도록 하는 적극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차弘植특허청장은 『청사확보문제는 정부의 수도권 인구분산정책등으로 규제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히고 『관련부처와 긴밀히 협조, 최대한 노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차청장은 또한 『기구개편문제는 행정개혁심의위원회에서 계속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밝히고 特許情報서비스의 강화문제에 대해서도 『周知

慣用 기술집등 관련책자의 발간등을 계속 추진하며 산업기술원등 特許情報기관과 연계, 서비스하는 방안도 고려』중 이라고 말했다.

多者間 雙務協商 추진 知所權관련 국제협력강화 노력

정부는 올해 知的所有權의 국제화 및 여건변화에 대한 대응책으로 多者間협상과 雙務협상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최근 特許廳이 발표한 「89년도 업무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知的所有權의 국제화추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불필요한 통상마찰을 사전에 해소하기 위해 世界知的所有權機構(WIPO)회 의와 GATT우루과이라운드등 각종 국제회의에 참여하는 한편 쌍무협상 및 상호교류를 활발히 추진한다는 것이다.

이같은 국제협력강화방안에 따라 特許廳은 △特許法통일화 조약안 작성을 위한 전문가회의(4월·11월) △불가리아 國際工業所有權집포지엄(4월) △집적회로 배치설계보호조약체

택을 위한 외교회의(5월) △WIPO총회 및 개발협력상설위원회(9월) △生命工學전문가회의(10월) 등에 참여할 체비를 서두르고 있다.

또 올해반기에 韓·佛특허청장회의를 서울에서 개최하는 등 쌍무간협상을 추진하고 △불가리아 국제工所權집포지엄에 강사파견 △蘇聯과의 세미나교류 △中國발명심포지엄참가등 상호교류 확대방안을 구체화하고 있다. <☞>

新 刊 案 內

CIP와 商標戰略

辨理士 金 延 洙 著

가 격 : 8,000원

판매처 : 韓國發明特許協會
資料販賣센터